韓國動亂

<1973>

삼천여자상업고등학교
1973. 9. 11
등록번호 770 호

韓國弘報協會

머 리 말

韓國動亂이 勃發한지도 어언 23年이 지났다. 數 많은 民族의 悲劇을 낳았던 韓國動亂은 이제 歷史의 章 속에 자리할 年輪을 쌓은 것이다.

「歷史란 整理된 歷史的 事實의 論理요, 現實이란 整理되지 않은 事實들의 散在」라고 할 수 있다면, 韓國動亂의 歷史的 整理는 오히려 時間的으로 너무 늦은 感이 없지 않다. 韓國動亂의 歷史的 評價가 全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冷戰時代의 固定化, 새로운 局地戰의 存在樣式, 「알다」體制의 終焉, 世界 恐慌의 克服 등, 韓國動亂은 여러 가지 角度에서 分析 評價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韓國人에 의한 韓國人의 評價가 아니었다. 이들 評價가 韓國動亂의 原因에 關心을 가지기보다 韓國動亂의 結果에 대해 더 깊은 關心을 가진 評價들이었다는 것은 그 評價者들이 局外者였기 때문이다. 局外者들의 評價가 어떤 것이건, 韓國人에게 重要한 것은 이 動亂이 韓半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며, 이 同族相殘의 悲劇을 演出한 戰犯者가 누구인가 하는 點이다.

그것은 이 民族이 이 땅 위에서 平和와 繁榮을 追求하고 永遠한 幸福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發見하지 않으면 안 될 歷史的 課題이다. 「이데올로기」는 時代에 따라 變하는 것이지만 民族은 永遠한 것이기에 韓國動亂의 戰犯者를 밝히내는 일은 「이데올로기」를 超越한 民族의 課題이다. 이 책은 이같은 歷史의 召命意識에서 計劃된 것이다.

歷史를 記述함에 있어 우리가 어떤 原則 위에 서야 할 것인가는 自

明한 일이다. 그것은 歷史的 事實에 忠實하여야 한다는 鐵則이다. 途色된 記述이나, 意圖的인 資料의 選擇은 이미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歷史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韓國動亂에 관한 資料라면 東西 어느 陣營의 것이든 淡淡하게 이를 引用하고 檢討하였다.

그러나 韓半島에는 歷史를 變造하는 北韓共産集團이 存在하고 있다. 1945年 8月 15日의 解放이 聯合國의 勝利와 軍國主義 日本의 降服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 個人의 抗日「빨치산」運動으로 爭取한 勝利라고 그들은 歷史를 記錄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動亂에 介入하여 가장 큰 戰爭 當事者의 하나가 된 所謂「中國人民支援軍」(中共軍)의 參戰事實조차 그들의 歷史에서는 無視되고 있다. 韓國動亂의 勃發原因에 대한 그들의 記述이 歷史的 事實을 歪曲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當然하다고 하여야 한 것이다.

眞實을 眞實 대로 밝히는 것은 歷史 記述의 責任이요 使命이다. 이제은 韓國動亂 當時의 國際情勢의 흐름을 解明하여 冷戰體制 下에서의 韓國動亂의 性格과 原因을 밝혔다. 韓半島의 分斷이 韓國民族의 「이데올로기」對立에서 온 것이 아니라 東西冷戰에서 緣由된 것이라면, 韓國動亂은 韓民族의 主體的 意志보다는 國際環境이라는 客觀的 條件下에서 惹起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南北韓의 統一政策을 中心으로 韓國動亂의 原因을 解明하였다. 政治的「슬로건」과 政治的 現實이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나, 이 部門은 南北 두 社會가 지녔던 性格上의 差異를 明白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南北 두 社會가 戰時動員體制로 組織되어 있었는가, 어느 程度의 戰時動員 能力을 가치고 있었는가 하는 側面에서 韓國動亂의 開戰者를 解明하려 하였다.

當然히 南北韓의 軍事力을 對比해야 했다. 軍事力과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戰爭槪念의 差異, 武裝狀態 등을 冷徹하게 比較 檢討하였다. 또한 動亂勃發 初期의 戰鬪狀況과 占領政策 등을 檢討하여 開戰者를 糾明하려고 試圖하였다.

動亂 勃發 이후 二十餘年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아직 動亂의 挑發 責任에 관한 論議가 進行되고 있는 것은 歷史의 愚弄이요 冒瀆이다. 우리는 이 無意味한 歷史의 變造劇에 終止符를 찍으려고 이 책을 읽었다.

冷戰時代의 舊殼에서 脫皮하려는 世界史의 轉換點에서 冷戰體制의 가장 酷甚한 犧牲을 强要 당했던 韓國人에 의해 韓國動亂은 整理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한 卷의 册이 韓國動亂의 眞實을 理解하는 데 貢獻하게 되기를 바라며, 關心있는 諸賢의 더 많은 硏究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者(保導聯盟 加入者)도 의무적으로 參加시킬 것 등의 內容이었다.

이러한 決定에 따라 各級 黨組織에서는 義勇軍 募集을 위한 具體的인 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青年團體인 「民青」을 中心으로 한 各 社會團體에 命令했다.

各 社會團體에서는 제각기 群衆集會를 開催하고 「同盟員」 및 團體構成員들로 하여금 義勇軍에 志願토록 하였다.

學生들은 18歲 以下만 登校하게 하고 나머지는 「民青」에 모두 加入시키면서 「義勇軍」에 나갈 것을 强要하기도 했다. 한편 「民青員」들을 거리의 要所 要所에 配置시켜 놓고 젊은 青年들을 「民青」事務室로 連行하여 强制로 志願시켰다.

이러한 方法으로 强制徵用된 義勇軍 數는 南韓에서만 約 20餘萬명으로 推算된다. 北韓에서 發行한 「祖國解放 戰爭史」에서는 40萬명으로 發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一定한 곳에 集結되어 訓練을 받고 一部는 北으로 가고 一部는 洛東江 戰鬪에 直接 參加하기도 하였다.

各道에서는 義勇軍을 中心으로 旅團을 編成했는데 慶北은 安東旅團(36旅團), 忠南은 大田旅團, 全南은 光州旅團 등의 名稱을 가지고 있었다.

第6節 要人逮捕와 肅淸

北韓 共產黨은 「人民軍」占領 地域에서의 要人逮捕와 「反動」 肅淸을 그들의 주요한 政策目標의 하나로 하였다. 이러한 事業에는 「政治保衛部」가 中心이 되어 內務省(警察) 및 各 社會團體들이 動員되었는데 서울에서는 過去 右翼系 事情을 잘 아는 사람들을 포섭, 街頭特殊 情

報網을 組織하고 이들로 하여금 右翼系 人士들의 가택수색까지 해가면서 逮捕토록 하였다. 逮捕한 사람들은 一旦 해당 내무서에 넘기고 거기에서 審査를 하게 했는데 이들은 모두 유치장 또는 中央廳 地下室 등에 수감되었다.

地方에서는 逮捕와 同時에 處刑한 事例도 많았으며 내무서 유치장 또는 倉庫 등에 감금시켰다. 그리고 審査를 거쳐 「人民裁判」을 열고 그 자리에서 卽決 處分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었다.

1950年 9月 20日頃에는 「人民軍」 敗走와 關聯하여 收監되어 있던 人士들에 대한 措置가 下達되었다. 즉, 그들을 北韓地域으로 後送하거나 後送이 困難할 경우에는 現地에서 適當히 處斷하라는 內容이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各 地方에서는 刑務所에서 또는 山中에 끌고 가서 大部分 集團 학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서울과 京畿道 江原道地方 住民들을 强制로 北으로 끌고 갔으며 全南北 慶南北 등에서도 住民들을 智異山을 비롯한 過去 遊擊地帶에 强制 入山시켜 「빨치산」을 組織하여 第2戰線 役割을 담당하게 하였다. 『人民軍은 곧 다시 내려 온다』는 허위선전으로 그들을 기만하였던 것이다.

政治人을 비롯한 要人逮捕에는 매우 교활한 方法을 썼다. 집을 수색하고 집에 없으면 家族들을 위협·공갈하고 은신할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체포했다. 그러한 方法만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회유정책도 썼다.

즉, 逮捕된 巨物級 要人으로 하여금 강제로 新聞 또는 放送을 통해 同僚들의 자수를 권유케 하는 方法, 新聞에 自身의 自首를 公告하게 하는 方法 등을 썼다.

「朝鮮人民報」에서는 國會議員들의 自首를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公

告文이 신였다.

『所謂 國會議員이란 이름으로 갖은 착취와 학살을 감행해오던 매국도당의 두목들은 지금 自首하여 人民共和國 政府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그런데 아직까지 시골 或은 서울市內에 피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自首하여 자기의 죄과를 淸算하여야 한 것이다. 아직 자수하지 않은 자들의 연락사무소는 서울市 茶洞 ○○「그릴」로서 連絡 來往에 對한 身元은 保障되어 있다. 連絡 時間은 오는 20일까지 每日 午前 10시부터 午後 5시로서 미처 본인이 못올 경우에는 代理人이 먼저 連絡해도 무방하다.』[21]

이처럼 공갈, 협박 또는 회유의 方法을 썼던 것이다.

逮捕된 要人들은 大部分 北으로 拉致해 갔는데 拉北은 2次에 걸쳐 진행되었다. 第1次는 7月 下旬頃 平壤의 건설 모습을 구경시킨다는 구실로 끌고 갔다. 1次에 拉北된 사람은 주로 政界 要人들로서 協商派 自進 出頭者 國會「푸락치」事件 關聯者 등 利用價値가 있다고 判定된 사람들이었다.

第2次는 8月 中旬頃인데 이는「反動官僚」「反動分子」로 낙인 찍힌 要人들로서 各 內務署 유치장, 중앙청 지하실 등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은 도보로 끌려 갔는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중에 총살되고 말았다. 拉致된 代表的 人物들은 다음과 같다.

政治人으로는 吳夏英 趙素昻 安在鴻 金奎植 元世勳 尹琦燮 金若水 嚴恒燮 趙琬九 趙憲泳 朴建雄 등이며

軍人은 宋虎聲

文化 言論 藝術界에서는 方應謨 鄭寅普 馬泰榮 李光洙 安基玉 金晋燮 등이며 기타 徐相天 白麟濟 朴義賢 金慶鎭 등등이다.

第7節 政治宣傳과「署名」運動

1. 政治宣傳

住民들에 대한 政治宣傳은 쉴새 없이 進行되었다. 宣傳內容 中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한 것은 6·25挑發 責任에 관한 것이었다. ① 6·25動亂은 李承晩政權의 北進統一政策에 의해 먼저 挑發했고 ② 人民軍이 反擊해 나온 것은 南韓을 解放하기 위한 正義의 戰爭이며 ③ 蘇聯을 비롯한 모든 國家들의 積極的인 支持와 後援이 있기 때문에 正義의 戰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式으로 6·25動亂이 마치 大韓民國에서 먼저 挑發한 것인양 인식케 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었다.

宣傳要員들은 大部分 北韓에서 派遣된 政治工作員들이었다. 이들은 金日成綜合大學生을 비롯한 大學生들이 많았는데 6·25가 일어나자마자 차출되어 宣傳內容과 要領 등에 대해 短期講習을 받고 南派되었다[22].

그들의 數는 5,000~6,000名에 達하며 各面 里單位까지 派遣되었다. 강연회 해설모임 좌담회 등을 수시로 開催하여 6·25에 관한 上記內容을 선전했다.

그 밖에「人民軍은 眞正한 人民의 軍隊」라는 內容도 많이 宣傳하였다.

北韓에서는 6·25의 挑發責任을 南韓에 전가시키는 方法으로서「人民軍」에 의해 체포된 政治人들을 利用하기도 하였다.

當時 內務部長官이었던 金孝錫에게 放送을 시켰는데 그 放送 內容을

註.

2) 朝鮮中央年鑑，1949年度，朝鮮中央通信社 發行，p.67
3) 〃 〃 p.1
4) 〃 1950年度 〃 p.17
5) 〃 1951～52年度 〃 p.16
6) 朝鮮勞動黨 歷史教材 1964年度， p.257
7) 朝鮮中央年鑑，1949年度，朝鮮中央通信社 發行，p.1
8) 〃 1951～52年度， 〃 p.85
9) 朝鮮人民報，1950年 7月 14日，1面
10) 〃 1950年 7月 15日，1面
11) 朝鮮中央年鑑，1951～52年度，p.87
12) 北韓法令集(1)，國土統一院 發行，p.711
13) 朝鮮中央年鑑，1951～52年度，p.84
14) 朝鮮人民報，50年 7月 17日，1面
15) 〃 〃
16) 朝鮮中央年鑑，1951～52年度，p.120
17) 北韓法令集(2)，國土統一院 發行，p.14
18) 朝鮮中央年鑑，1951～52年度，p.119
19) 〃 〃 p.83
20) 朝鮮人民報，50年 7月 14日，1面
21) 〃 50年 7月 20日，1面
22) 朝鮮中央年鑑，1951～52年度，p.459
23) 朝鮮人民報，50年 7月 14日，2面
24) 〃 50年 7月 14日
25) 〃 50年 7月 20日，2面
26) 〃 50年 7月 16日，1面
27) 〃 50年 7月 14日，2面
28) 〃 50年 7月 20日，2面

結　語

韓國動亂

印　刷　1973年 7月 22日
發　行　1973年 7月 27日

編著者
發　行　韓國弘報協會

印　刷　光明印刷公社

<非賣品>